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#### [미국 경제]

Bloombeg:

- Bloomberg: 1월 미 소비자 심리지수 '급락'...2014년 이래 최저
- WSJ: 연준, 금리 당분간 동결...언제 인하할지 불확실
- CNBC: CNBC 설문 응답자들, "올해 금리 0.25% 인하 두차례만"

#### [날씨 여파]

- Bloomberg: 다음 주에 눈 폭풍이 또다시 미 동부 온다
- Bloomberg: 미 항공사들, 한파 여파로 여전히 항공편 취소...추가 눈폭풍 대비

#### [교육]

- Bloomberg: 예일대, 20만불 미만 가구에 학부생 학비 면제

#### [트럼프 행정부]

- WSJ : 트럼프 행정부, 메디케어의 보험사 지불액 거의 동결 제안

#### [무역 전쟁]

- WSJ: 유럽과 인도, 자유무역협정 체결...인구상 최대폭

#### [오일]

- Bloomberg: 미 한파 여파로 오일가 상승세

#### [중국 경제]

- CNBC: 중국 산업기업들 수익 작년에 0.6% 상승

### [미국 경제]

#### **Bloomberg: US Consumer Confidence Plummets to Lowest Level Since 2014**

#### **1월 미 소비자 심리지수 '급락'...2014년 이래 최저**

- 1월 미 소비자 심리지수가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져 미 경제와 노동 시장에 대해 더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.
- 컨퍼런스 보드가 오늘 화요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리지수는 12월에 94.2로 상향 조정됐으나 1월에는 84.5로 감소했다. 이는 지난 2014년 5月以来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를 밑돌았다.
- 구체적으로 향후 6개월 경제 전망을 보여주는 1월 지표는 지난해 4월 이래 가장 낮았으며,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한 지표는 지난 5년 동안에 가장 낮았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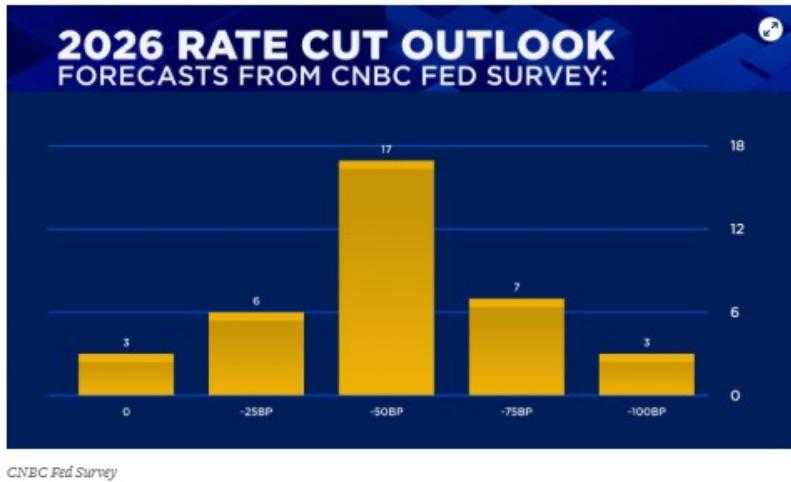
#### **WSJ: Fed Set to Pause Rate Cuts, With No Clear Path to Resuming 연준, 금리 당분간 동결...언제 인하할지 불확실**

- 연준 관리들은 과거 9월 이래 3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한 후에 이번주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.
- 기준 금리는 3.5~3.75%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와 일자리 시장 테이터 관련해 향후 금리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연준 관리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.
- 인플레는 연준의 목표치 2%를 상회한 2.8%에 거의 고착된 상태인데 올해 중반 전에 금리를 인하할지는 노동 시장이 악화할 때 해당된다는 것. 현재로서는 언제 금리를 인하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.

기사

### CNBC: Fed is likely to lower rates only two more times, even under Trump's next chair pick: CNBC Fed Survey CNBC 설문 응답자들, "올해 금리 0.25% 인하 두차례만"

- CNBC 응답자들, "올해는 0.25% 두차례만 금리 인하"
- CNBC Fed Survey 응답자들에 따르면 올해 0.25%씩 두차례의 금리 인하만 있을 것이며, 내년에는 아직 그런 기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응답자들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명한 새 연준 의장이 트럼프의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.
- 이 같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이유는 미 경제성장을과 노동 시장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.
- 응답자들은 새로운 연준 의장에 전 연준 이사였던 Kevin Warsh를 트럼프가 지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

기사

### [날씨 여파]

### Bloomberg: Odds Are Rising That Another Winter Storm Will Pummel US East Next Week 다음 주에 눈 폭풍이 또다시 미 동부 온다

- 또다른 눈 폭풍이 미 동부에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행 차단과 정전 사태를 일으킨 이번 폭설에 이 지역이 막 회복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폭설로 전력망이 테스트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.
- 연방 기상대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지역, 버지니아 남동부, 동부 매사추세츠 지역에 폭풍으로 인한 다소 경미한 피해 가능성이 60%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. 특히 롱아일랜드와 뉴저지 해변가를 비롯한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매사추세츠등 광범위한 지역에 오는 2월1일부터 2일간에 심하지는 않지만 여파 가능성이 40% 이상될 것으로 예상됐다.
- 기사 기상대의 선임 예보관 David Roth는 “4~6일 후의 예측인데도 이렇게 높은 확률이 나온다는 점이 주목된다”라고 말했다.

기사

## **Bloomberg: US Airlines Cut Flights Again as Another Winter Storm Looms**

**미 항공사들, 한파 여파로 여전히 항공편 취소...추가 눈 폭풍 대비**

- 한파로 인해 주요 공항들의 운영이 아직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여전히 취소하고 있다.
- 항공 추적 관련 FlightAware에 따르면 오늘 화요일 동부 시간 9:15분 현재 미 항공사들은 총 1천5백 편 이상 항공편을 취소했다.
- 다음주에 또다른 한파와 폭설 가능성으로 항공편 추가 취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.

기사

## **Bloomberg: Yale to Offer Free Tuition to Families Making Below \$200,000 예일대, 20만불 미만 가구에 학부생 학비 면제**

- 작년 하버드 대학에 이어 예일대도 연소득이 20만불 미만의 가구 자녀들이 대학 재학시 학비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.
- 이는 2026년~2027년부터 해당되는데 학교 측은 자산이나 소득이 10만불 미만일 경우 모든 비용을 면제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.
- 이 학교측은 “장래성이 있는 학생과 예일대 교육간에 비용으로 인한 장애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연간 학비가 9만불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하버드, 프린스턴, MIT 등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.

기사

## **[트럼프 행정부]**

### **WSJ: Trump Administration Proposes Keeping Steady the Rates Medicare Pays Insurers**

**트럼프 행정부, 메디케어의 보험사 지불액 거의 동결 제안**

-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어의 보험사에 대한 지불액을 내년에 0.09%만 인상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. 이는 당초 월가가 예상한 4%~6% 상승폭 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.

-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“특정 자료 방문과 관련이 없는 보험사의 보험 차트 진단 때문에 지급되는 돈은 없애겠다”고 덧붙였다.
- 2027년 전체 지급액은 2.54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
- 이는 제안된 요금 변경과 기본 청구에서 오는 추가 2.45% 증가분을 합친 수치이다.
- 이에 따라 United HealthCare등 보험사들의 주가가 10% 이상 떨어진 종목이 많았다.

기사

### [무역 전쟁]

#### **WSJ: EU and India Reach Free-Trade Deal as World Responds to Trump Tariffs**

#### **유럽과 인도, 자유무역협정 체결...인구상 최대폭**

- 유럽연합과 인도는 자유무역협정을 최종 결정했는데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면에서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다. 해당 지역은 인구는 20억명에 해당한다.
- 이번 자유무역협정으로 유럽연합의 제품 90%가 관세가 없거나 줄어들게 되어 연간 48억 달러의 관세를 절감하게 되고 자동차 관세도 110%에서 10%로 줄어든다.
- 이 협정은 중간 강국들이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협력으로 나온 조치이며.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관세 이후 나온 상호 합의 협력이다.

기사

### [오일]

#### **Bloomberg: Oil Rises as Traders Weigh Fallout From US Freeze, Weaker Dollar**

#### **미 한파 여파로 오일가 상승세**

- 투자자들이 미국의 한파 여파와 달러 약세가 원유 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가격은 상승했다.
- 특히 미국의 한파로 인해 걸프만 원유 정제소가 타격을 입어 생산이 감소했다. 물론 이 같은 여파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.
- OPEC+는 오일 생산 정책과 관련된 검토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오일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.

기사

### [중국 경제]

#### **CNBC: China's industrial profits edge up in 2025, reversing three years of declines as Beijing curbs price wars**

#### **중국 산업기업들 수익 작년에 0.6% 상승**

- 작년 중국내 산업 관련 기업들의 수익이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2025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0.6% 상승했다.
- 특히 지난해 12월의 경우 지난 9월이래 월간 단위가 가장 강세를 보인 달이었다.
- 그러나 산벌내에 업종별 차이가 심해 회복세가 고르지 않고, 중국 국내 수요가 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.

기사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